

시장 상인들 응원에 트로트 입문했죠

여전히 떨려서 선글라스 포기 못해

100회 채운 '골방 음악회' 또다른 시작



광주서 100번 동안 '골방음악회'를 열어온 바닥프로젝트는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이웃처럼 한결같이 관객 곁을 지켜왔다.

'바닥 프로젝트' 10번째 대인시장·카페 등서 매달 공연 지역 음악인들과 정기 공연·음반 작업 프로젝트 계획

한겨울의 추위를 실감케 한 지난달 26일 저녁 광주 동명동의 한 카페 '반딧불'. 공연이 시작되기 전 한 남자는 관객에게 직접 떡국을 끓이고 다른 두 남자는 난로를 사이에 두고 손만 한 명 한 명에게 안부를 묻는다. 이날 100번째 '골방음악회'를 연 3인조 거리공연팀 '바닥 프로젝트'의 일상이다.

임웅(보컬·어쿠스틱기타), 김영훈(보컬·우쿨렐레), 김현무(대피리·퍼커션)가 지난 2010년 결성한 '바닥 프로젝트'는 "딱 100번 공연해보자"며 매달 공연을 열어왔다. 8년 4개월, 햇수로 치면 10년째다.

스무평 남짓한 공간에 빼곡이 찬 50명 관객의 코앞 거리에서 이들은 마이크 없이 이야기를 읊조리듯 공연을 시작했다. '이 날 김원중·센치한 버스·원보름·김거봉·스타카토 리퍼블릭 등 지역 음악인들을 마주할 수 있었다. 100회 진행을 맡은 '악사 대장' 임웅(42)씨는 곡 사이 음악회를 찾은 특별한 손님들을 일일이 호명했다. 적어도 70번은 '출석체크'했다는 열혈 관객과 지금은 추억이 된 문화카페 카시오페아의 운영자 김재원씨도 서둘러 발견음을 했다. 왕년의 5인조 바닥 프로젝트의 원년 멤버인 2명도 깜짝 등장했다. 누구에게나 열린 '골방음악회'는 이번 공연만 '전석 초대'로 진행됐다.

멤버 중 가장 눈물이 많다는 임씨는 "100회는 그동안 함께 무대에 선 음악인 동료들과 도움 준 이들과 함께 소소하게 보내고 싶었다"며 "마지막 공연에서는 눈

물을 보이지 않으려 오히려 99번째를 더 특별하게 치렀다"고 말했다.

바닥 프로젝트는 지난 연말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녹음실 부스에서 99번째 음악회를 동료 뮤지션과 함께 열고 실황 음반 '비디피 특별한 협업집'도 냈다.

100회 첫 곡은 대인시장을 노래한 '우리들 여기모여'로 문을 열었다. 바닥 프로젝트는 지난 2010년 '대인예술시장 레지던시 작가'로 활동하며 시장에서 운영한 '음악사랑방 다락'에서 첫 골방음악회를 시작했다.

'우리는 대인시장에 있어요~ / 삶의 냄새 물씬 풍기는 좁은 시장 거리에서 / 물건을 팔며 마음을 나누며 우린 살아요'

바닥 프로젝트의 대인시장 사랑은 노래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지난 2014년 이들이 낸 정규 1집에는 30년 넘게 시장국밥집을 열어 온 상인의 마음을 담은 '나 이곳에서'와 '시장에 가면', '홍어송' 등이 수록돼 있다.

'버스킹 할 때 저희의 첫 고정 관객은 대인시장 어머니들이었어요. 고사리를 뜯거나 생선 손질하던 어머니들이 노래를 듣고 점차 흥을 얻어 덩실거리며 춤까지 추시더라고요. 덕분에 용기를 얻어 트로트에도 입문하게 됐어요.'

선글라스 쓴 모습이 매력적인 김영훈(41)씨는 이따금 공연 도중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너무 떨려서"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다.

'제 별명이 왜 '빠다'(VADA)인지 아세요? 지금은 너살 좋게 농담도 던지지만 예전에는 하도 긴장되서 공연 전에 주문을

걸기까지 했어요. 내성적인 모습을 감추려고 말끝마다 여색한 손짓을 한 게 누군가에게는 느끼하게 느껴졌나 봐요. 거리에 나선지 십 수 년이 지났지만 아직 선글라스는 포기하지 못했어요.'

마냥 유쾌해 보이지만 하는 이들에게도 아픈 날들이 있었다. 버스킹이 생소한 시절 대학가나 시내 한복판에서 쫓겨난 아픔은 '쫓겨났네'라는 노래로 승화했다. 골방음악회 역시 3번 이사를 했고 지난 2017년 5월 '반딧불'이 문을 열면서 새로운 아지트를 마련했다.

'바닥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어느 바닥이나 무대로 만들자는 다짐으로 만들어졌어요. 바닥에 깔려있는 모든 이야기를 노래하지는 약속도 담겼죠. 바닥프로젝트가 '다락'이나 '골방'과 같은 숨은 공간을 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공연 중반까지도 침묵을 지켰던 막내 김현무(39)씨는 그동안 담아왔던 속내를 털어놓았다.

"20대에 공연을 시작해서 눈 깜짝할 새 마흔을 바라보게 됐네요. 골방음악회는 100번이라는 목표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형들과 함께 음악적으로 성장했고 지난해에는 제 앨범도 세상에 나올 수 있었어요. 함께 한 멤버와 관객·동료에게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100회로 마무리 짓는 골방음악회는 다락 프로젝트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 이들은 뜻 맞는 지역 음악인들과 정기적인 합동 공연을 열 계획이다. 또 올 상반기 발표 계획인 신보 작업에 전념하기로 했다. 바닥 프로젝트의 행보는 인터넷 카페(cafe.naver.com/badaprojec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

수줍은 듯, 새침한 듯, 고향 누이들 소환

광주신세계 갤러리 25일까지 신철 초대전

수줍은 듯, 새침한 듯, 조금은 촌스러운 내는 현사가 됐다. 전시에서 만나는 화화와 입체 20여 점은 관람객들에게 따스함을 전해주는 작품들로 자신의 곁에 있는 이들을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든다. 작품 속 그녀와 그는 첫 사랑을 수줍게 고백하는 젊은이들이기도 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젊은 연인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의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건 인물들과 함께 나무, 집, 별, 꽃 등 배경에 등장하는 소품들이다. 여기에 무엇보다 화려하고 산뜻한 색감이 눈에 띈다. 얼핏 아이들의 그림 속에서 등장할 것 같은 원색의 색깔들은 그림에 화사함을 더하며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경쾌하게 만들어준다.

한평생 꿈꾸는 소년의 감성으로 그림을 그려왔다는 작가는 "누구나 하나쯤은 그리움을 간직하고 산다"고 말한다. 그의

수줍은 듯, 새침한 듯, 조금은 촌스러운 내는 현사가 됐다. 전시에서 만나는 화화와 입체 20여 점은 관람객들에게 따스함을 전해주는 작품들로 자신의 곁에 있는 이들을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든다. 작품 속 그녀와 그는 첫 사랑을 수줍게 고백하는 젊은이들이기도 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젊은 연인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의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건 인물들과 함께 나무, 집, 별, 꽃 등 배경에 등장하는 소품들이다. 여기에 무엇보다 화려하고 산뜻한 색감이 눈에 띈다. 얼핏 아이들의 그림 속에서 등장할 것 같은 원색의 색깔들은 그림에 화사함을 더하며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경쾌하게 만들어준다.

한평생 꿈꾸는 소년의 감성으로 그림을 그려왔다는 작가는 "누구나 하나쯤은 그리움을 간직하고 산다"고 말한다. 그의



'사랑여행'

작품은 잊고 지냈던 유년의 기억을 불러내며 순수함과 따스함의 세계로 안내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원광대 미술과와 홍익대 대학원을 졸업한 신 작가는 40여 차례 개인전과 800여 회 단체전·아트페어에 참여했으며 중학교 미술교과서에 작품이 수록돼 있다. 그림과 글이 함께 담긴 책 '노스텔지아'(2018)와 '순수의 시절'(2014)을 펴냈다. 문의 062-360-127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美 작가 진행 미디어아트 워크숍 참가자 모집

광주문화재단 3월 10일까지



워크숍을 진행하게 될 로렌 매카시는 로스앤젤레스와 브루클린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로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사회 기술 시스템을 탐구하는 작가다. UCLA와 MIT에서 컴퓨터 과학 및 예술 디자인을 전공했으며 현재 UCLA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에 작품을 출품했으며 London Eye 및 미국 홀로코스트 박물관 설치 작업을 수행했다. 작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광주에서 다양한 계층과 만나고 미디어아트를 매개로 한 사회적 통합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전했다.

참가 자격은 광주 및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아티스트, 학생, 시민 등 모두에게 열려있다. 영어능력은 필수는 아닌 우대 사항이다. 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gjcf.or.kr)에서 참가신청서(구글 폼/Google Form)를 작성하고, 이력서를 이메일(gjcf0416@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 마감은 3월 10일까지. 문의 062-670-7494.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티투어' 배우 모집

주스컴퍼니 20일까지

(주)주스컴퍼니는 이야기와 함께 광주를 둘러보는 '광주 100년 이야기'에 출연할 배우를 모집한다.

'광주 100년 이야기'는 테마형 광주시투어의 하나로 배우의 설명과 퍼포먼스를 즐기며 관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뉴욕의 '더 라이드', 여수남만버스 등에 착안한 관광 콘텐트로 투어 참가자들은 버스를 타고 광주 명소를 여행하게 된다. '가이드 퍼포머'라 불리는 배우는 광주 곳곳을 연기를 곁들여 소개한다. 이들은 1930년대, 1980년대 인물을 가장해 참가자들과 여행을 떠난다.

투어는 송정역·광주중합버스터미널을 출발해 광주극장·양동시장·양림삼룡·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을 경유한다. 제1코스를 위해서는 남자 1명, 제2코스는 남 2명·여 1명을 모집한다.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 주말 1일 근무하며 한 달 가량 연습을 갖는다. 투어 공연은 오는 4월 첫째 주 시작한다. 지원은 오는 20일까지 전자우편(aliceyujeong@gmail.com)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1930 페이스북 페이지(facebook.com/GJ1930)나 010-9432-2298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165,000 원 (VAT포함)

2019년 3월 27일 (수)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 062-228-4711~2

신양파크호텔 봄맞이 디너쇼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로케일 증명)

2019 Dinner Show
박상민

ShinYang Park Hotel